

“저장 베르디 최고의 비극을 마주하라”

‘운명의 힘’ 27~28일 문예회관
광주서 최초 전막 공연
국내외 최정상 성악가들 열연
대구국제오페라축제 폐막 공연도

광주와 대구가 힘을 합쳐 선보이는 그랜드 오페라가 광주 무대에서 펼쳐진다.
광주시립오페라단이 27일(오후 7시 30분), 28일(오후 3시)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베르디의 오페라 ‘운명의 힘’을 광주 최초로 전막 공연한다.
이번 공연은 광주-대구가 함께 진행하는 ‘달빛동맹’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 광주문화예술회관과 대구오페라하우스가 처음으로 합작해 공동 주최하는 공연으로, 무대의상, 소품 등 제작비를 분담하고, 각 지역 성악가가 고루 출연한다.
또 이번 공연을 10월 12~13일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리는 ‘대구국제오페라축제’에서도 폐막작으로 만나볼 수 있다.
광주시립오페라단은 지난 10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내 시립오페라단스튜디오에서 제작발표회를 열고 소프라노 정소영, 바리톤 공병우의 아리아 시연을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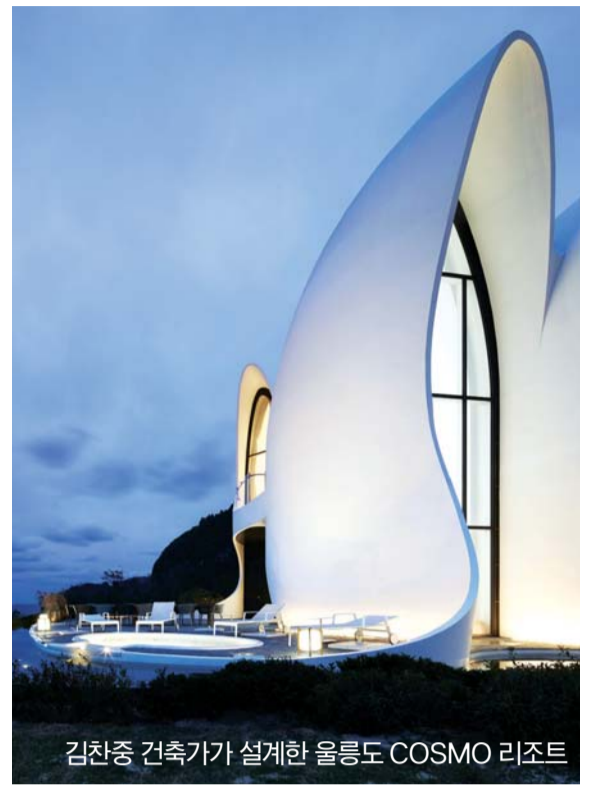


광주시립오페라단 제작발표회에 참가한 (왼쪽부터)바리톤 공병우, 소프라노 정소영, 정갑균 예술감독, 성현출 광주문화예술회관장, 양승수 공연지원과장.



이번 작품은 18세기 초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 직후, 세비야 귀족 가문 내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풀어내는 작품으로, 인간의 힘을 넘어선 신의 힘과 ‘운명’을 주제로 한 작품이다. 특히 ‘서곡’의 경우 ‘마농의 샘’ 등 영화 삽입곡으로 쓰이고 여러 연주회에서 따로 연주되는 등 잘 알려져 있다.
칼라트라바 후작의 딸 레오노라와 그의 연인, 잉카제국의 후손 알바로는 집안의 반대를 피해 도망치다 사고로 후작을 죽이고 만다. 레오노라

의 오빠 카를로는 복수를 위해 둘을 쫓으나, 레오노라는 알바로와 헤어져 산 속 동굴에 은거한다. 신분을 감추고 입대한 알바로는 우연히 카를로의 목숨을 구하고 서로 절친한 친구가 되지만, 집 속의 레오노라 초상화를 들키면서 결투 신청을 받게 된다. 두 차례 결투 끝에 승리한 알바로는 죽어가는 카를로를 위해 수도사를 찾는데, 근처 바위 동굴에 있던 수도사는 레오노라였다.
정갑균 예술감독은 “지난해 대구오페라하우스와의 합작 주제로 ‘운명’이 선정돼 이 작품을 골랐다”며 “인간으로서 헤쳐나가기 힘든 고뇌와 고통으로부터 드러나는 삶의 모습에 중점을 두고 연출했다”고 말했다.
소프라노 정소영(27일), 임세경(28일)이 레오노라 역을 맡고, 테너 신상근(돈 알바로 역), 바리톤 공병우(돈 카를로 역) 등이 출연한다. 대구 지역 성악가인 테너 하석배·김주영, 바리톤 김만수·허호, 베이스 윤성우, 메조소프라노 백민아·이수미 등도 함께 무대를 꾸민다.
연세대 음악대학 명예교수 최승한 지휘자가 지휘봉을 잡고 대구오페라하우스의 오페라 전문 오케스트라 ‘디오 오케스트라’가 연주한다. 광주 시립합창단, 전남대합창단, 루치칸티어리합창단, 진소발레단도 함께 무대를 꾸민다.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B석 1만원.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김찬중 건축가가 설계한 올레도 COSMO 리조트

공유 공체

공유된 가치, 공동의 이익

제 2회 광주건축대전
25~28일 靑丘문화전당

최근 건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건축과 공간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만날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지역 건축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 2회 광주건축대전이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조원 복합6관에서 열린다.

광주건축단체연합회가 주최하고 한국건축가협회 광주전남건축가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공모전 전시회와 기획전시, 심포지엄으로 이뤄진다.

메인 행사는 공모전 전시회다. 주최측은 공유공리(共有公利·공유된 가치, 공동의 이익)를 주제로 지난 6~7월 공모전을 진행했고 세 차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일반공모전 수상작품 47점과 일반시민들이 특 특 튀는 아이디어를 제안한 아이디어공모전 수상작품 46점을 이번 전시에서 선보인다.

기획 전시는 ‘포용의 도시, 마을의 건축-현대로컬 도시 건축전’을 준비했다. ‘로컬’에서 현재의 일상적인 삶과 공간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건축가 각각의 특색있는 활동들을 조망하는 전시로 도시와 건축의 교차된 시선을 제시하고 있는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최재영·이원규·박흥근·최시화 건축가 등이 설계한 옥천미술관, 제주도 베게 프로젝트, 공동마루, 최홍중 기념관, 하우리 공방촌, 월정당, 안락동 부박스 등 각 지역 건축가와 후천작 20여개 작품의 판넬과 사진이 전시된다.

김찬중(더시스템랩 대표·경희대 초빙교수) 건축가와 함께하는 심포지엄은 26일(오후 2시 라이브러리 파크 극장 3) 열린다. ‘THE SYSTEM LAB’을 주제로 열리는 이날 강연에서는 김 건축가의 주요 작품을 살펴보고 건축 철학에 대한 강연을 듣는다.

고려대 건축공학과와 하버드 건축대학원을 졸업한 김 건축가는 2018 서울시 건축상 대상 및 건축문화대상을 받았으며 2006년 이탈리아 베니스비엔날레 초청전시, 베이징 국제 건축비엔날레 ‘주목받는 아시아 젊은 건축가 6인’, ‘2016년 영국 월 페이퍼 선정 세계의 주목할 만한 건축가 20인’에 뽑히기도 했다.

올해 1월 윌페어퍼는 그의 대표작인 올레도 COSMO 리조트를 ‘더 베스트 뉴 호텔’ 수상작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임방울 국악제’ 대통령상 판소리 명창부 정혜빈

‘제27회 임방울 국악제’ 대통령상(상금 4000만원·순금트로피)은 판소리 명창부 정혜빈(35·서울·사진)씨가 차지했다.



(사)임방울국악진흥회는 지난 23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1에서 열린 ‘임방울 국악제’ 본선 무대에서 판소리 ‘심청가’ 중 ‘곽씨 부인 유언대목’을 부른 정혜빈씨를 대상에 선정했다.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를 졸업한 정씨는 고(故) 성창순 명창을 사사했다. 지난해 임방울국악제에서 명창부 최우수상 방일영상을 받았으며 박록주전국국악대전 판소리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판소리 일반부 최우수상(문화부장관상)은 ‘적벽가’ 중 ‘적벽대전’을 부른 서의철(서울)씨가, 가야금 병창부 최우수상(문화부장관상)은 ‘춘향가’ 중 ‘천사뫼뫼이’를 부른 김소예(서울)씨가 받았다. 농악 부문 대상(국회의장상)은 충남 당진농악단이 차지했다.

시조 부문 최우수상(광주시장상)은 완재사설시조 등을 부른 강재연(경남)씨가, 무용 부문 최우수상(문화부장관상)은 살풀이로 참가한 안명주(전북)씨가 수상했다. 기악 부문 최우수상(국무총리상)은 해금을 연주한 강서연(서울)씨가, 퓨전국악 부문 최우수상(광주시장상)은 ‘농부가’ 중 창작곡을 선보인 올라(광주)씨가 차지했다.

한편 올해는 각 부문별 72명의 수상자에게 총 1억 8000여만원의 상금이 주어졌다. /유연재 기자 yjyou@

양상블 오데움 ‘장소의 음악회’ 광주문예회관, 25일 ‘아름다운 작은 음악회’

양상블 오데움이 25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음악회 ‘장소의 음악’을 연다.

광주문화예술회관 ‘아름다운 작은 음악회’로 개최되는 이날 공연은 특정 장소나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음악을 중심으로 꾸며진다.

이날 공연에서는 스페인의 정취를 담은 ‘그라나다’,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중부 유럽을 연상시키는 집시 풍의 음악 ‘차르다시’, ‘헝가리 무곡’, 일본 온천 마을이 떠오르는 영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삽입곡, 아르헨티나의 열정과 우수가 담긴 ‘포르 우나 카베자’, ‘리베르 탱고’ 등을 연주한다.

또 영화 ‘코코’ 삽입곡 ‘Remember Me’, 영화 ‘겨울왕국’ 삽입곡 ‘메들리와 함께 비틀즈의 대표 히트곡들을 쿠바 작곡가 레오 브로우어가 편곡한 ‘Beatlerianas’ 중 ‘Eleanor Rigby’,

‘Yesterday’, ‘Penny Lane’ 등 3곡도 무대에 올린다.

지난 2016년 창단한 양상블 오데움은 클래식 기타리스트 배장흠을 중심으로 이지혜(피아

노), 정다운(바이올린), 배성우(첼로), 오아라(플루트) 등 연주자들로 구성된 클래식, 영화 음악, 라틴 뮤직 등을 연주하는 음악 단체다. 전석 2만원.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국제도시디자인포럼’ 개최... ‘광주, 리브랜딩’ 정책 추진 등 제안

광주 국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고유한 사회적 가치를 담은 도시 브랜드 만들기 필요하며, 사람과 마을 중심 도시재생과 도시디자인을 위한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구체화하는 정책을 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세계의 도시디자인 전문가들이 모여 광주의 국제도시 도시브랜드 방향에 대해 논의한 ‘국제도시디자인포럼’이 20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컨퍼런스홀에서 열렸다.<사진>

광주디자인센터(센터장 위성호)가 주관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원, (사)한국공공디자인학회, 등이 후원한 이번 포럼은 ‘광주, 리브랜딩’을 주제로 진행됐다.

도시브랜드, 도시재생, 도시개발사업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는 빈스 콘웨이 영

국 노팅엄트렌트대학 교수, 무라타 지야키 일본 허스디자인 메타퍼스 대표, 모하메드 압델모넴 영국 노팅엄트렌트대학 교수, 나가노 츠네아키 일본 아플종합계획사무소 대표, 시모네 카레나 이탈리아 모토엘라스티코 건축사무소대표(홍익대 교수), 최성호 한국공공디자인학회 회장 등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또 토론 패널로는 한우성 유니버설트렌드센터 대표, 최재영 전남대 교수, 이석현 중앙대 교수, 정성구 도시문화재단CS 대표, 임재영 조선대 교수, 김향란 삼화페인트 상무 등이 참석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